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三國使臣의 服飾 研究

이진민·남윤자*·조우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ostumes of the Envoys from the Three Kingdoms painted in Wanghoido(王會圖) and Bungekipjodo(蕃客入朝圖)

Jin-Min Lee · Yun-Ja Nam* · Woo-Hyun Cho**

Dept. of Clothing & Textile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Professor of Inha University**

(2001. 4. 10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investigation of the historical value of Wanghoido(王會圖) and Bungekipjodo(蕃客入朝圖) and examination of the costumes of the Envoys from the Three Kingdoms drawn in the paintings above.

Wanghoido(王會圖) is presumed to be painted around early 7th century. This is a colored picture on silk on which twenty-six Envoys from twenty-four Kingdoms are painted. Bungekipjodo(蕃客入朝圖) is presumed to be painted in the early 10th century. This is drawn on paper with only black brush line, no color. There are thirty-five Envoys from thirty-one Kingdoms in the painting.

Wanghoido(王會圖) and Bungekipjodo(蕃客入朝圖) are the important materials which are useful to understand the original Liangjikgongdo(梁職貢圖). From the records about interchange of the Envoys in the early 6th century, the characters and costumes painted in Wanghoido(王會圖) and Bungekipjodo(蕃客入朝圖), the copy of the original Liangjikgongdo(梁職貢圖), get the reality.

The Envoys from Koguryo(高句麗), Paekche(百濟), and Shilla(新羅) painted in the two paintings above are all wearing Jangyu or Yu(長襦 or 襦; an upper garment), Go(袴;trousers), Kwanmo(冠帽; headdress), Dae(帶;belt), and Hwa(靴;shoes). But they differ in some aspects. For example, the shape of the Kwanmo(冠帽), hair style and patterns on the costumes, etc.

Key Words : 왕회도(Wanghoido), 번객입조도(Bungekipjodo), 양직공도(Liangjikgongdo),
사신복식(the costumes of the Envoy)

※ 본 논문은 2001학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속 생활과학연구소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I.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주변국들과 정치·군사·문화·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를 가져왔다. 특히, 삼국의 성립 이후 주변 국가들과의 국제 관계는 使臣의 來往, 朝貢使節의 파견으로 유지되는 것이 한 특징이었으며 그 형태는 다양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대부분 평화적인 對等關係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들 使節들의 왕래와 문화 교류의 자취는 국내의 문헌에 기록으로 남겨졌고, 일부는 고분벽화나 회화 등으로 남아 오늘날 古代史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1995년 대만에서의 공개 이후 1998년에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두 圖卷에는 고대 삼국사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특히 두 圖卷은 종전의 자료들이 삼국 중 1개국의 사신만이 각각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단편적으로 발견되어 왔던 것에 비하여, 고대 삼국사신의 모습이 각각 정확한 國名의 표기와 함께 동일 공간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두 圖卷에 묘사된 삼국사신의 모습을 통해 삼국복식의 정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정확한 國名과 연대상에 있어서 異論이 제기되어 왔던 기존의 벽화, 회화 자료들에 묘사된 인물들의 논의에도 참고 될 수 있는 자료이며, 우리나라 삼국사신의 모습 이외에도 주변국 사신들의 모습이 다수 묘사되어 있어 同時代 아시아 諸國人的 용모, 풍속, 복식 등을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매우 귀중한 것이라 하겠다.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국내에 자료가 소개되자 역사학, 미술사학, 복식사학 등의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연구는 「王會圖」에 대한 고찰¹⁾만이 이루어진 정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자료 검토에 있어 2000년 8월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두 圖卷의 원본을 현장조사하여 도록이나 사진 등의 2차사료의 고찰에 의한 한계점을 극복하였고, 그 史料의 가치의 파악과 함께 두 圖卷에 묘사되어 있는 우리나라 삼국사신의

복식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동시적 공간에서의 우리나라 고대 삼국복식에 대한 고찰은 당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나아가 고대 복식의 현대적 복원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배경

1. 「梁職貢圖」의 模本

두 圖卷에 대한 고찰에 있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두 圖卷이 「梁職貢圖」의 模本으로 推察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를 고찰한 선행 연구들에서 모두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職貢圖는 중국에 조공하러 온 외국 민족의 형상, 복식, 풍속 등을 그린 것으로, 국제적 朝貢관계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사상을 반영하고 그들의 理想을 표현하기 위해 그려졌던 그림이었다. 현존하는 最古의 職貢圖로 알려져 있는 「梁職貢圖」는 梁武帝(在位502-549)의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梁(502-557)에 조공하러 온 30여개국 외국 사절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는 조공국의 지리, 풍속, 梁과의 교류관계 등이 각국의 使臣像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梁職貢圖」는 본래 梁武帝의 7子 蕭繹(508-554, 후위 元帝)의 필치로 완성된 것으로 당시 荊州刺史로 재임 중이던 蕭繹이 荊州에 온 외국인의 용모, 풍속을 직접 관찰, 조사하여 편찬한 것이다. 梁武帝의 즉위 40년은 大同 7년(541) 내지 8년(542)에 해당하므로 圖卷의 구체적인 편찬시기는 蕭繹이 荊州 刺史로 재임 중이던 大同 5년(539)을 전후한 시기인 6세기 초로 보고 있다.²⁾

그러나 이 「梁職貢圖」의 原圖는 이미 손실된 상태이고 현재 중국 북경 역사박물관(이전에는 남경 박물관 소장)에 소장되어 있는 것은 12국의 使者像만이 남은 殘卷이다. 이 殘卷은 宋熙寧 10년(1077)의 模本이며 여기에 기록된 각국의 지리, 풍속에 관계하는 기술 등으로부터 이것이 「梁職貢圖」原圖를 模寫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³⁾ 이 「梁職貢圖」宋代 模本은 繪畫史, 역사학, 복식사학 등에 있어서 6세기 諸國人的 용모, 복식, 풍속을 전하는

귀중한 史料的 가치를 갖는 것이다.

『梁職貢圖』宋代 模本은 초기에 王會圖 혹은 唐 閻立德의 작품으로 불렸던 것인데, 1960년 金維諾이 그의 연구를 통해 이것이 『梁職貢圖』이며, 『石渠寶笈』⁴⁾에 기록된 『唐閻立德職貢圖』⁵⁾와 『大觀錄』⁶⁾에 기록된 『閻立德王會圖』⁷⁾는 모두 閻立德과는 관계없는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대한 기록임을 분명히 하였다.⁸⁾ 『王會圖』와 『蕃客入朝圖』가 『梁職貢圖』의 또 다른 模本이라는 것은 『梁職貢圖』宋代 模本과의 비교에 의해 명확해진다. 즉, 두 圖卷의 형식, 기재된 國名, 使者像의 모습들이 宋代 模本과 비교하여 매우 닮아 있다는 사실은 두 圖卷이 『梁職貢圖』의 模本이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2. 『王會圖』의 제작배경

전술한 바와같이 『梁職貢圖』宋代 模本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唐代의 화가 閻立德 혹은 閻立本의 작품으로 혼돈되어 전해져 왔다는 사실은 매우 주의할 부분이 있다.

『王會圖』에 관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기록은 『舊唐書』卷197이다. 그 내용을 보면, 唐 貞觀3년(629) 東謝蠻酋元深的 入朝 때에 당시 中書侍郎이었던 顏師古가 아뢰기를 '옛날 周 武王 때에 천하가 태평하여 먼 외국으로부터 방문이 있었는데 周史에는 이를 王會篇이라고 기록하였다. 오늘날 萬國이 章服을 갖추어 來朝하매 이를 옮겨 그려 王會圖를 편찬할 것을 請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⁹⁾ 이러한 내용은 『唐會要』卷99¹⁰⁾에도 동일하다. 『宣和畫譜』에는 唐 貞觀年間(627-649)中 顏師古의 請으로 立德에게 명하여 東蠻謝蠻酋元深的 入朝 모습을 그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¹⁾ 이것 역시 『舊唐書』의 기록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나 作者에 관한 언급이 최초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閻立德, 閻立本에 관하여는 『歷代名畫記』에 간략한 전기가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王會圖』라는 언급은 없고 다만 閻立本에게 『外國圖』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¹²⁾ 전기에는 立德과 立本의 그림에 대한 李嗣眞의 평이 덧붙여져 있고, 立德과 立本 모두 萬國來庭의 모습을 그렸으며 우열을 가리지

어려울 정도로 둘 다 잘 그렸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³⁾ 즉, 『歷代名畫記』에는 萬國來庭의 모습을 그린 구체적인 圖卷의 제목으로 閻立本의 『外國圖』만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立本과 立德 두 사람에게 이러한 그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立本 또는 立德에게 萬國來庭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다른 자료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大觀錄』卷11의 내용이다. 이 기록이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관한 것임은 이미 지적하였으나 여기에 부가된 跋文¹⁴⁾의 내용에는 『閻立德王會圖』라 하여 『大觀錄』의 필자가 감상한 그림(곧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이어서 元代的 康里子山과 王餘慶(叔善)이 쓴 跋文이 더하여져 있다. 康里子山은, 立德의 王會圖는 唐 貞觀年間 太宗의 治世 때에 萬國의 入朝를 계기로 그린 것이며 이는 寶物에 견줄 만큼의 귀한 繪畫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後記된 王餘慶의 跋文은, 그가 감상한 그림이 貞觀3년(629) 東謝蠻酋元深的 入朝 때에 顏師古가 청하여 제작하게 한 王會圖이며 이는 『宣和畫譜』에 기록된 立德의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이 두 跋文은 『石渠寶笈』卷5 『唐閻立德職貢圖』의 기록에도 동일하게 덧붙여져 있으나 이 跋文의 내용들도 『舊唐書』를 비롯한 前代의 기록들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王餘慶이 쓴 跋文의 경우에는 『舊唐書』와 『宣和畫譜』의 기록을 단순히 관련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石渠寶笈』에는 『唐閻立德職貢圖』외에도 『唐閻立本王會圖』라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¹⁵⁾ 그 내용은, 絹에 그린 彩色畫로 총 24국의 인물이 그려져 있으며 각 인물의 오른쪽 上部에는 각각의 國名(標題)이 쓰여 있고 圖卷의 끝부분에는 印章이 찍혀있으나 印章 내용의 판별은 어렵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唐 貞觀 治世 中에 良工에게 명하여 王會圖를 그리게 하였다는 내용의 明代 王肯堂의 贊에 이어 圖卷에 찍힌 鑑藏印¹⁶⁾들을 열거하고 있다. 끝부분에는 鑑藏印을 비롯한 여러 印章 기록들과 그림의 필치로 볼 때 비록 款識¹⁷⁾는 없으나 본 그림이 唐 閻立本의 작품이라는 것에는 의심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⁸⁾ 이 기록에서 열거된 鑑藏印들과 인장 기록들은 실제 『王會圖』에서도 모두

관찰되는 것으로 실제의 圖卷을 보고 썼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다만 「王會圖」의 제작에 관하여는 唐 貞觀 治世 中의 일이라는 前代의 기록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 「王會圖」의 관련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圖卷의 제작시기에 대하여 唐 貞觀 3年(629) 또는 唐 貞觀年間(627-649)이라는 시기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王會圖」의 제작시기는 唐 貞觀年間, 즉 7세기 초인것으로 사료된다. 「王會圖」의 국내 소개시에 그 제작과 관련하여 唐 太宗 때의 왕실행사를 묘사한 것이라고 하였으나¹⁹⁾ 「王會圖」에 대한 기록들 중 이와 관련된 언급이 없고, 현재 이 圖卷이 「梁職貢圖」의 模本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太宗 때의 실제 행사장면을 그렸다가 보다는 太宗 治世 중에 있었던 萬國使臣의 入朝를 기념하여 당시에 전해지던 「梁職貢圖」를 模寫하여 새로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王會圖」의 作者에 관하여는 최초의 관련 기록인 『舊唐書』를 제외한 다른 기록들에서는 閻立本 혹은 閻立德으로 언급하고 있다. 현재 「王會圖」를 소장하고 있는 대만 고궁박물관에는 『石渠寶笈』에 남아 있는 「唐閻立本王會圖」의 기록을 바탕으로 閻立本의 다른 작품들과의 比定을 통해 作者를 閻立本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²⁰⁾ 현재 단정적인 기록은 없으므로 정확한 규명은 미술사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고 본다.

「王會圖」는 絹에 그린 彩色畫로 폭 238cm, 높이 28cm 정도의 卷軸 형태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삼국을 비롯하여 총 24개국 26명의 사신이 朝貢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각 인물은 가로 5-6cm, 세로 19-20cm 정도의 크기로 그려져 있다. 묘사된 인물들은 색채가 뚜렷이 남아있고, 각 인물의 얼굴은 물론 복식에 묘사된 문양들도 모두 다룰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진 점이 큰 특징이다. 인물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각 인물의 오른쪽 上部에는 각각의 國名이 쓰인 標題가 붙어 있다. 圖卷에 묘사된 사신들은 한 나라에서 각각 한 명의 사신이 입조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가장 선두의 使者像만은 하나의 國名 뒤로 3명이 함께 그려져 있다. 圖卷에는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보이는

職方志는 남아 있지 않으나 宋代의 模寫에는 보이지 않는 다수의 국가명칭들이 있어서 「梁職貢圖」原圖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3. 「蕃客入朝圖」의 제작배경

「蕃客入朝圖」에 대하여는 『石渠寶笈續編』第17의 「南唐顧德謙模梁元帝蕃客入朝圖」라는 기록에²¹⁾ 의하면, 종이에 그린 白描畫로 총 31국의 외국사절상이 묘사되어 있으며, 필자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다. 宋 理宗의 題識이 덧붙여져 있고, 등근 형태의 '乾卦印'과 호리병形(瓢印) '己酉印'의 2종류의 印章이 찍혀 있다. 圖卷의 앞부분에는 계축년(1781) 新正에 淸 乾隆帝가 쓴 2개의 鈴寶가 날인되어 있다. [鑒藏寶璽]부분에는 圖卷에 찍혀있는 乾隆帝의 모든 印章을 기록하였고, [收云印記] 부분에는 乾隆帝 이전 소유자의 印章 기록을 열거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賈似道(1213-75)가 쓴 『悅生古蹟記』에 '梁元帝蕃客入朝圖'가 著錄되어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그림을 顧德謙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石渠寶笈續編』에 언급된 印章들은 실제 「蕃客入朝圖」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으로 그림의 전래과정에 관한 근거가 된다. 圖卷상의 收藏印에 의하여 추측할 수 있는 「蕃客入朝圖」의 전래과정은, 12-13세기 경 宋 왕실에서 소장하게 되면서 1189년 또는 1249년에 南宋의 광종 혹은 理宗에 의해 題識과 標題가 더하여졌고, 그 후 明代에 鄭俠如가 소장하게 되었으며, 清代에 鄭熙績에게 인계되었다가 이후 淸 內府에 보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²²⁾

「蕃客入朝圖」의 作者에 대하여는 款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헌 기록도 영세하다. 다만 顧德謙의 필치로 완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근거는 宋 理宗이 쓴 것으로 생각되는 '南唐顧德謙模梁元帝蕃客入朝圖'라는 題識을 통해서이다. 顧德謙은 인물화 및 동, 식물화에 뛰어났던 五代 南唐(923-936)의 화가이며, 圖卷의 作者에 의하면 그 제작은 五代 南唐 시기 즉 10세기초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宋 理宗의 題識에 '...模梁元帝...'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南唐시기의 어떤 특정한 행사를 지칭한 것이 아니며, 「王會圖」의 경우와 같

이 당시에 전해지고 있던 元帝 蕭繹의 「梁職貢圖」를 새로 模寫하여 제작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蕃客入朝圖」는 종이에 그려진 白描畫로 彩色 없이 墨線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圖卷은 8폭의 종이를 이어 붙인 총 530cm 정도의 길이이고, 높이는 28cm의 卷軸 형태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삼국을 비롯한 총 31개국 35명의 사신이 朝貢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각 인물은 높이 20-21cm의 크기이며 圖卷의 앞부분에는 '自文其弱'이라는 文字가 있으며 職方志는 남아있지 않다. 인물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늘어서 있고 각 인물들의 오른쪽 上部에는 각각의 國名이 쓰여있다. 이러한 구도는 「梁職貢圖」宋代 模本이나 「王會圖」와 동일하다.

4.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史料的 가치

(1)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기재된 國家數 현존하는 「梁職貢圖」宋代 模本에는 滑國을 선두로 13국의 國名이 남아 있다.²³⁾ 「王會圖」에는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기재된 나라들 중 滑國을 제외한 12국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보이지 않는(존재하였으나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11국, 판별이 불가능한 先頭의 1국이 더하여져 총 24국의 國名이 기재되어 있다. 「蕃客入朝圖」는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기재된 나라들 중 末國을 제외한 12국의 國名과 동일하고, 그 외 「王會圖」와 일치하는 10국, 「梁職貢圖」宋代 模本이나 「王會圖」에는 보이지 않는 9국이 더하여져 총 31국의 國名이 기재되어 있다. 國名의 기재순서는 「梁職貢圖」宋代 模本, 「王會圖」, 「蕃客入朝圖」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중간 중간 그룹별로는 그 순서가 일치하고 있는데, 일치하는 그룹별로는 圖卷 또는 세 圖卷의 使者像을 비교해 보면 순서대로 매우 닮아 있음이 관찰된다. 세 圖卷에 기재된 國名과 그 기재순서에서 보이는 일치 정도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가 동일한 母本 곧 梁 元帝 蕭繹의 「梁職貢圖」에서 파생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梁職貢圖」原圖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2) 묘사된 使者像의 寫實性

『梁書』諸夷傳의 기록을 중심으로 6세기 초 梁과 아시아 주변국간의 사신 왕래 기록을 살펴보면, 梁武帝 天監元年(502)부터 梁簡文帝 大寶2年(551)에 이르기까지 모두 22국의 주변국 사신이 梁에 朝貢하러 왔으며, 우리나라 삼국의 사신들도 모두 梁을 방문했던 기록이 보인다. 고구려는 512년부터 541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고 백제는 521년 신라와 함께 입조 했던 것을 시작으로 549년까지 총 4회, 신라는 521년 백제와 함께 입조 했던 1회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²⁴⁾ 「梁職貢圖」의 완성시기는 蕭繹의 荊州 刺史 재임시(526-539)로부터 梁武帝의 재위 40주년 즈음의 大同 5年(539)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하는데, 6세기 초 梁과 여러 주변국간의 사신 왕래 기록은 이러한 蕭繹의 편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즉, 圖卷에 묘사된 인물들은 실제 梁을 방문했던 使者의 모습이며, 이들은 6세기 아시아 諸國의 정황 및 諸國人의 용모, 복식 등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梁職貢圖」를 模寫한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표현된 우리나라 삼국사신을 비롯하여 여러 주변국 사신의 복식 묘사는 寫實性을 갖고 있다.

(3) 模寫 와 模本

「梁職貢圖」宋代 模本을 비롯하여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原本'이 아닌 '模本'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에 대해 再考하게 되는 일면이 있다. 동양미술에 있어서 模寫는 회화나 서예 등의 작품을 모방하여 베끼는 것을 의미하며, 원작자의 기법이나 의도를 모방하여 원작을 이해하고 방법적인 측면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귀중한 작품을 복제하는 목적으로도 행하여졌으며 특히 중국미술에서는 '傳模移寫'라 칭하여 중시되었던 부분이다. 金維諾은 「梁職貢圖」模本의 가치에 관하여, "현존하는 「梁職貢圖」가 비록 宋代의 模本이라 할지라도 원본을 模寫하는데 매우 충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료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는 蕭繹의 風格에 의거하고 있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²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梁職貢圖」의 模本으로 인정되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梁

職貢圖」原圖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두 圖卷 자체가 이미 연대적인 가치가 있으며, 當代 일류 화가의 필치가 더하여진 것으로서 繪畫史的 의의 또한 크다고 본다.

세 圖卷의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같은 나라의 使臣 간에도 복식이나 용모에 있어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는 模寫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식의 근본적인 구조상의 차이는 없고, 사신의 얼굴모습, 복식의 문양, 세부적인 착용 방식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정도이므로 模寫 과정상의 기술적인 면을 감안 할 때 圖卷에 묘사된 인물상을 아시아 諸國人의 복식으로 고찰,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梁職貢圖」原圖의 模本으로 이미 밝혀진 「梁職貢圖」宋代 模本の 제작시기와 비교해 볼 때 「王會圖」의 제작은 7세기초, 「蕃客入朝圖」의 제작은 10세기초로 추정되므로 결과적으로는 11세기에 模寫된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先行하는 자료가 된다.

III.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삼국사신의 服飾

「王會圖」의 복식 묘사는 「蕃客入朝圖」나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비해 매우 상세한 것이 특징이다. 복식의 형태는 물론 服色과 옷에 그려진 문양도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다. 「蕃客入朝圖」는 간결한 線描에 의한 복식 표현이 특징이며 黃色 바탕에 墨線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服色은 알 수 없다. 「王會圖」와 같은 섬세한 문양 묘사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옷의 실루엣, 주름 등 線에 의한 복식표현이 확연하다.

1. 삼국사신의 복식묘사

(1) 백제 사신

「王會圖」의 백제사신은<그림 1> 전체 사신 가운데 네번째, 삼국사신 중에는 첫번째로 묘사되어 있다. 머리에는 흑색의 관모를 착용하였고 연한 초록색계의 長襦와 황색계의 袴를 입고 있다.²⁶⁾ 관모에는 끈

이 달려 있어 턱 밑에서 묶어 고정하였다. 長襦는 소매가 넓고 길며 무릎 정도까지 내려오고 깃, 수구, 밑단에 붉은색계²⁷⁾의 넓은 襟이 있고 양쪽 어깨 위치에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袴와 같은 황색계의 넓은 布帶를 매어 무릎선 이하로 길게 드리웠고, 拱手 자세에 수염이 그려져 있다. 통이 넓은 바지는 밑단을 묶지 않고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흑색의 靴를 신었고, 耳飾이 확인된다. 「蕃客入朝圖」의 백제사신은<그림 2> 전체 사신 가운데 열여섯번째, 삼국사신 중에는 첫번째로 묘사되어 있다. 머리에 관모를 쓰고 끈으로 턱 밑에서 묶어 고정하였다. 무릎까지 오는 長襦는 깃과 단의 襟은 확실하나 수구 부분은 拱手를 취하면서 생긴 주름으로 襟이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 布帶는 정면에 매듭을 지어 무릎선까지 늘어뜨렸다. 통이 넓은 바지는 밑단을 묶지 않고 착용하였다. 신발은 靴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王會圖」
백제사신



<그림 2> 「蕃客入朝圖」
백제사신

(『中國疆域的變遷』上 pp.80, 63.)

(2) 고구려 사신

「王會圖」의 고구려 사신은<그림 3> 전체 사신 중 열다섯번째로 위치하고 있는데, 삼국사신 중 색채, 문양 등이 가장 화려한 분위기로 묘사되어 있다. 머리에는 조우관을 착용하였고 붉은색계의 長襦와 초록색계의 袴를 입고 있다.²⁸⁾ 관모에는 鳥羽狀의 插植物이 선명하고 長襦의 깃, 수구, 단에는 黑色의 넓은 襟을 들렀으며, 長襦 전체에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허리에는 연한 황색계²⁹⁾의 넓은 布帶를 둘러 무릎선

까지 늘어뜨렸다. 바지의 밑단에는 붉은색³⁰⁾ 襪을 넓게 들렀는데, 바지의 통은 넓으며 밑단을 묶지 않고 착용하였다. 흑색의 靴를 신고, 둥근형 耳飾을 하였으며 拱手 자세이다. 「蕃客入朝圖」의 고구려 사신은 <그림 4> 전체 사신 가운데 스물다섯번째로 위치하고 있다. 鳥羽形의 장식을 삽식한 관모에는 끈이 달려 있어 턱 밑에서 묶어 고정하였다. 무릎까지 이르는 長襦는 깃, 수구, 밑단에 襪을 들렀다. 통이 넓은 袴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폭이 매우 넓게 묘사되어 있고, 밑단은 묶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布帶는 정면에 매듭을 지어 늘어뜨렸고, 신발은 앞이 올라간 高頭履형의 靴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拱手 자세이나 얼굴을 뒤로 젖히고 있다.



<그림 3> 「王會圖」 고구려사신
<그림 4> 「蕃客入朝圖」 고구려사신
(『中國疆域的變遷』上 pp.80, 63.)



착용하였다. 「蕃客入朝圖」의 신라사신은 <그림 6> 전체 사신 가운데 서른한번째, 삼국사신 중에는 마지막으로 위치하고 있다. 「王會圖」의 사신과는 달리 머리를 올린 위에 관모를 쓰고 끈으로 턱 밑에서 매어 고정하였다. 襦는 깃, 수구에 襪이 있고 소매 길이가 길며 왼손을 위로한 拱手자세이다. 특히 신라사신은 袴의 착용 모습이 靴 속으로 바지를 넣어 착용하고 있어 백제, 고구려의 사신과는 착용법이 다르다. 帶는 고구려, 백제사신보다 나비가 좁은 革帶에 둥근 장식이 있다.



<그림 5> 「王會圖」 신라사신
<그림 6> 「蕃客入朝圖」 신라사신
(『中國疆域的變遷』上 pp.80, 63.)

(3) 신라 사신

「王會圖」의 신라사신은 <그림 5> 전체 사신 가운데 열일곱번째, 삼국사신 중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위치하고 있다. 백제, 고구려사신이 머리를 올린 것과는 다르게 어깨너머로 길게 풀어 내리고 관모를 착용한 것이 특징이다. 襦는 황색계로³¹⁾, 백제, 고구려사신이 착용한 襦에 비하여 길이가 약간 짧아 둔부를 덮는 정도이고 깃, 수구, 밑단에 열린 청록색계의 襪을 들렀다. 袴는 襦보다 열린 황색계열³²⁾로 전체적으로 연한 청색의 무늬가 있다. 부리쪽으로 갈수록 통이 조금씩 좁아지는 모습이다. 拱手 자세에 가려 帶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흑색의 靴를

2. 삼국사신의 복식유형

(1) 髮 樣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총 6인의 삼국사신은 모두 冠帽를 착용하고 있는데 冠帽 아래로 묘사된 頭髮의 형태로 볼 때 「王會圖」의 신라사신을 제외한 나머지 5인의 사신은 모두 상투를 틀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경우 관모를 착용하지 않은 男子의 修髮樣式은 외상투(豎髻)가 보편적이며, 이는 백제와 신라 남자의 修髮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王會圖」의 신라사신은 被髮한 위에 관모를 착용한 모습이 나머지 삼국사신들과 구별된다. 신라 남자의 髮樣에 관하여는 『新唐書』에 “남자들은 머리털을 깎아 팔아서 흑건을 쓴다.”³³⁾는 기록이 있고 『三國史記』에는 신

라와 唐의 頭髮交易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으나 신분이나 상황 조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修髮樣式에 대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王會圖」신라사신의 被髮에 관하여 몇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王會圖」의 신라사신이 같은 그림의 백제, 고구려사신과 비교하여 수염도 기르지 않았고 얼굴의 분위기나 姿態 등이 연령이 적어 보이므로, 혼인여부와 관련성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樂人, 舞踊人, 平人 등의 대체로 낮은 신분이나 특수한 직무를 갖는 인물들에서 被髮이 보이고 있는 점과 「王會圖」의 신라사신이 착용한 복식이 백제, 고구려사신의 복장에 비해 襦의 길이와 袴의 폭이 약간 짧고 좁은 것으로 보아 낮은 신분의 사신 혹은 특수한 직무와 연관이 있는 사신으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冠 帽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 묘사된 총 6인의 삼국사신은 모두 冠帽를 착용하였다. 두 圖卷에서 볼 때 백제와 고구려사신은 弁形 또는 둥근형을, 신라사신은 襪장식이 있는 각이진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 삼국의 사신들이 쓰고 있는 관모는 服飾과는 다르게 각국의 독자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백제사신을 보면, 「王會圖」의 사신은 黑色의 弁形 관모에 초록색계의 끈이 달려있어서 턱 밑에서 고정하여 착용하였다. 「蕃客入朝圖」의 사신도 둥글게 솟은 관모의 끝부분이 앞쪽으로 접혀 내려온 형태의 모자를 역시 끈으로 턱 밑에서 매어 착용하였다. 두 사신이 쓰고 있는 관모는 折風형으로 보인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折風の 형태는 帽頂이 뾰족한 三角狀이고 머리를 덮는 정도는 아니어서 좌우에 2가닥의 끈으로 턱 밑에 고정시켰다. 출토유물 중에 折風과 동일 계열로 보이는 관모에 의하면³⁴⁾ 弁形의 관모는 삼국의 공통관모였음을 알 수 있다.³⁵⁾ 백제의 品級別 복식 규정³⁶⁾에는 1品官에서 6品官까지 冠飾으로 銀花를 사용하였으나 두 圖卷의 백제사신의 관모에서는 冠飾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梁職貢圖」宋代 模本에 남아있는 백제사신은<그림 7> 관모 부위의 그림 손상이 심하여 정확한 관모의 형태 고찰은 불가능하다.³⁷⁾ 다만 冠帽에

끈이 달려 있어 턱 밑에서 묶은 것은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사신과 동일하다.



<그림 7> 「梁職貢圖」宋代模本(百濟)
(『中國歷代藝術』)

두 圖卷의 고구려사신은 모두 鳥羽冠을 착용하고 있다. 「王會圖」사신의 鳥羽冠 앞쪽에는 2개의 葉形 장식이 있고, 赤黃色계의 帽體에 2개의 鳥羽를 帽頂에 장식하였으며, 붉은색계의 끈으로 턱 아래에서 고정하였다. 「蕃客入朝圖」의 사신은 折風인 弁形冠帽 위에 鳥羽狀의 장식을 꽂고 끈으로 턱 아래에 묶어 착용하였다. 고구려 鳥羽冠의 帽體의 종류로는 折風, 蘇骨, 皮冠, 幘, 羅帽(羅冠)가 있는데 주로 弁形의 관모에 鳥羽를 삽식하였다.³⁸⁾ 그러나 「王會圖」고구려사신이 착용한 조우관의 帽體는 묘사된 것으로 보아 직물류보다는 모피나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하다. 『隋書』에 "사람들은 모두 皮冠을 쓰는데 使人은 冠 위에 鳥羽를 꽂는다."³⁹⁾ 라는 기록이 있어⁴⁰⁾ 「王會圖」의 사신이 착용한 관모는 이 皮冠을 묘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鳥羽冠의 착용은 두 圖卷상에서 고구려사신이 유일하다. 두 圖卷의 鳥羽冠은 插植한 鳥羽의 모양이나 재료 등에 차이는 있으나 弁形의 帽體에 조우를 꽂고 턱 밑에서 두 가닥의 끈으로 묶은 모습은 공통되며, 이는 唐 章懷太子 李賢 墓벽화의 사신과 敦煌石窟 335號 벽화의 2인이 착용한 鳥羽冠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고구려의 國名이 표기된 「王會圖」, 「蕃客入朝圖」의 鳥羽冠은 고구려의 상징적 관모로, 그간 이론이 제기되

어오던 사마르칸트 궁전벽화의 韓人사절이나 敦皇石窟에 묘사된 鳥羽冠 착용의 인물이 고구려인(고구려 流民집단 혹은 발해를 포함하는 고구려 계통의 인물)일 가능성을 더해준다.

「王會圖」의 신라사신은 검은빛이 도는 진한 綠色⁴¹⁾ 바탕에 열린 황색으로 테를 두른 관모를 착용하였고, 「蕃客入朝圖」의 사신도 이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 「王會圖」사신의 관모에는 귀 이하에 끈이 보이지 않으나 「蕃客入朝圖」의 경우 끈이 있어서 턱 밑에 묶었다. 두 신라사신이 착용한 관모는 앞 중앙부분이 보다 높고 좌우로 方形의 조각이 붙어있는 형태로, 특히 帽頂은 솟은 부분이 없이 평평해 보여 고구려, 백제사신의 弁形 관모와 구별된다. 신라의 관모 관련 자료에는 黑巾, 弁形帽 등이 있으나 두 圖卷상의 신라사신이 착용한 관모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梁書』에 “신라에서는 冠을 遺子禮라 하고, 襦를 尉解라 하고…” 라는 기록이 있는데⁴²⁾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冠으로 칭한 遺子禮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신라는 법흥왕 7년(520)에 百官公服의 次序를 제정하였는데,⁴³⁾ 648년 唐制로의 服制 변혁을 이루기 전까지 法興王代의 제도⁴⁴⁾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梁職貢圖」原圖가 제작된 시기인 6세기초, 당시 관직자의 冠帽인 錦冠, 緋冠을 살펴보면, 錦冠은 冠을 만든 재질에 근거하여, 緋冠은 色으로 구별하여 명명된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논의는 어렵다고 본다. 또한 色이 남아있는 「王會圖」의 경우 冠帽의 色은 흑색에 가까우므로 緋冠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錦冠, 緋冠과 함께 규정된 服色은 紫色으로 이는 신라사신이 착용한 黃色 계열의 襦, 袴와도 차이를 보인다.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신라사신의 관모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으나,⁴⁵⁾ 두 사신의 관모가 기존에 보여지는 관모 형태들과는 다른 것이며 이에 대한 문헌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 관모에 대해서는 추후의 논의를 기대한다.

(3) 襦, 袴

두 圖卷의 삼국사신들은 袍를 착용하지 않았고, 공통적으로 襦와 袴를 착용하였다.

「王會圖」의 백제사신은 무릎정도까지 오는 直領의 長襦를 右衽으로 입고 大口袴를 착용하였다. 長襦의 깃 부분의 襟에는 붉은 襟 바깥쪽으로 素色의 좁은 襟과 함께 이중 襟이 관찰된다. 고구려 벽화상의 貴人 계급 의복의 襟은 낮은 계급에 비하여 폭이 넓고, 문양장식이 있으며 이중 襟을 사용하고 있다. 깃 부분의 붉은 襟은 허리선 이하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襟의 형태는 「梁職貢圖」宋代 模本の 백제사신⁴⁶⁾과 「王會圖」고구려사신의 長襦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관찰된다. 백제, 고구려사신의 이러한 襟의 형태는 襦의 구성에 있어서 밑단까지 이어졌던 襟이 이미 짧아진 목판깃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王會圖」백제사신이 착용한 바지의 襟에도 저고리와 같은 좁은 이중선이 표현되어 있다. 다만 바지의 묘사에서 붉은 바지 위에 황색의 긴 袍류를 받침옷으로 입은 듯이 보이는데, 넓은 襟 위로 가는 장식 襟이 묘사된 점이나 「梁職貢圖」宋代 模本과 「蕃客入朝圖」백제사신이 모두 통이 넓은 바지만을 착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王會圖」의 경우 圖卷을 模寫하는 과정에서 외곽선의 과장된 표현으로 보인다.⁴⁷⁾

「蕃客入朝圖」의 백제사신은 長襦와 袴를 착용한 모습이 「王會圖」의 사신과 대동소이하다. 인물의 분위기는 「王會圖」, 「蕃客入朝圖」 및 「梁職貢圖」宋代 模本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착용한 복식은 세 圖卷이 모두 비슷하다. 6세기 백제와 梁의 교류 기록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에 모두 다섯 차례의 사신 파견기록이 보이고,⁴⁸⁾ 『梁書』 諸夷傳에도 入朝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梁職貢圖」에 묘사된 백제사신은 6세기에 통교했던 실제 사신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것으로 사료된다.

「王會圖」의 고구려사신이 착용한 長襦의 앞단 부분에는 백제사신과 마찬가지로 깃 부분에서 이어지는 襟 묘사가 보이지 않는다. 바지는 밑단이 넓은 채로 착용하였는데 이러한 착용방식은 4-6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상의 폭이 넓은 바지를 오므려 입은 모습이나 부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식의 바지 착용 모습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蕃客入朝圖」의 고구려사신도 長襦를 착용하였으며 밑단에는 깃 부분 보다 넓은 나비의 襟을 대었

다. 6세기 고구려와 梁의 교류는 활발하여 여러 차례의 사신 파견기록이 보이고 있는데,⁴⁹⁾ 이 중 사신의 관등을 밝힌 기록은 없으며 구체적인 품계에 따른 服制에 대하여도 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圖卷에 그려진 사신의 관품을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三國史記』와 『梁書』의 교류 기록들을 통해 볼 때 圖卷에 그려진 인물이 실제 고구려 使者를 보고 묘사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蕃客入朝圖」 사신의 바지하단 앞중심 부분묘사에 의하면 裳의 젖혀진 밑단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발의 모습과 함께 고찰할 때에 분명 넓은 袴만 착용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되어 袴위에 裳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료된다.

「王會圖」의 신라사신은 백제, 고구려사신의 長襦보다 조금 짧은, 둔부를 덮는 정도의 襦를 입고, 襦의 품도 백제, 고구려사신에 비해 넉넉하여 보이지 않는다. 襦의 깃, 끝동, 앞단, 밑단에는 청록색계의 넓은 襟을 대었으며 깃과 밑단에는 이중襟이 장식되어 있다. 袴 역시 백제, 고구려사신에 비해 통이 좁고 襦와 함께 소박한 느낌이다. 신라사신의 목주변에 있는 등근線 묘사에 관하여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⁵⁰⁾ 원본을 실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신의 얼굴, 목, 가슴부위의 색이 모두 같고, 圖卷의 다른 사신들의 목선(턱선) 묘사에 있어 컷볼에서 턱으로 이어지는 선이 매우 뚜렷하며, 일부 사신상에 있어서는 상체에 몸(피부색)이 드러나게 묘사된 부분에 貫頭衣의 목선으로 혼돈될 수 있는 線이 보이고 있다.<그림 8>⁵¹⁾



<그림 8> 「王會圖」狼牙脩, 建平蠻 國使의 목선묘사
(『古宮書畫圖錄』(15)p.25.27)

또한 上代 貫頭衣의 등근 목둘레로 보기에는 목선이 지나치게 높고, 「蕃客入朝圖」신라사신이 襦만 착용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신라사신의 목부위 선을 作家의 필치나 표현 기법에 의한 목선(턱선)의 묘사로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추후 貫頭衣의 착용가능성은 자료를 기대하여 본다.

「蕃客入朝圖」의 신라사신이 착용한 襦는 襟이 밑단까지 이어지며, 우입이다. 또한 앞중심 하단의 襦의 횡선은 裝飾襟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지는 「王會圖」와 마찬가지로 통이 비교적 좁고, 靴 속에 袴의 부리를 넣어 착용한 모습이 나머지 삼국사신들의 袴 착용모습과 구별된다. 주목되는 것은 袴 앞쪽으로 마치 蔽膝류와 같은 것을 발목까지 드리우고 있는데, 이는 전 신라시대에 걸쳐 보이지 않는 의복유형으로써 다만 중국에 가는 사신의 복장용을 위하여 의례적인 목적으로 특별히 갖추어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와 梁의 교류는 법흥왕 8년(521)의 기록이 유일하나⁵²⁾ 6세기 兩國의 교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고구려와 백제가 일찍부터 중국과 잦은 교류를 가지면서 4-5세기에 전성기를 맞았던 것에 비해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은 시기인 6세기 중반에 이르러 국가의 전성기를 맞았다. 복식에 있어서도 7세기에 쓰여진 중국 史書에 신라 복식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하고,⁵³⁾ 649년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唐의 公服을 수용하였으므로,⁵⁴⁾ 「梁職貢圖」가 편찬되었을 당시 복식을 비롯한 여러 제도면에서 삼국 중 신라가 가장 늦어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 두 圖卷에 묘사된 신라사신의 모습은 백제, 고구려사신에 비해 호복계의 國俗이 좀더 많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사료된다.

(4) 帶

「王會圖」의 백제, 고구려사신은 황색계의 폭이 넓은 布帶를 둘러 앞에 늘어뜨렸다. 묘사된 형태로 보아 부드러운 소재의 布帛帶이다. 「王會圖」의 신라사신은 허리위치에 손을 모으고 있어서 帶의 형태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나라 古代 服飾에 있어서 帶는 저고리를 여미기 위한 필수품이었고 그림에서 허리부분이 살짝 들어가게 묘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帶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듭

을 지어 길게 늘어지는 부분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蕃客入朝圖」신라사신이 착용한 帶의 형태를 참고해 볼 때, 「王會圖」의 사신 또한 革帶를 착용했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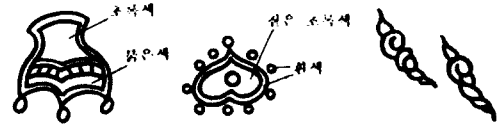
「蕃客入朝圖」의 백제, 고구려사신도 布帛帶를 길게 늘어뜨렸는데, 정면에 매듭을 지은 모양이 확실하게 묘사되어 있어 帶의 묶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신 모두 고를 내지 않은 형태로 매듭을 지었다. 「蕃客入朝圖」신라사신의 帶는 비교적 가는 폭 위에 원형 장식이 달린 형태이며 이는 가죽이나 布帛帶 위에 금속제의 과관이 장식된 이른바 鈿帶를 표현한 것이고, 원형의 장식은 鈿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鈿帶는 삼국의 공통적인 허리띠로 고신라 문화권에서 특별히 발달되었던 금속문화의 일환이다. 「蕃客入朝圖」에 보이는 鈿帶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이며 帶에 수식한 佩飾은 보이지 않는다.

(5) 문 양

「王會圖」백제사신이 착용한 長襦에는 <그림 9>과 같은 문양이 양쪽 어깨 부분에 장식되어 있다. 백제 관련 복식 자료에서 처음 보여지는 이 문양은, 안쪽은 초록색과 붉은색이며 옅은 황색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王會圖」의 고구려, 신라사신의 경우에는 長襦와 袴 전체적으로 문양이 묘사되어 있고 백제사신은 長襦의 양쪽 어깨 부분에만 白蓋형⁵⁵¹⁾의 문양이 각각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문양의 형태와 장식위치는 고구려와 신라사신의 의복문양과는 다르게 백제사신의 신분이나 지위 등과 관련된 표식으로 추정된다.

「王會圖」신라사신이 착용한 袴에는 연한 청색의 작은 雲紋형 문양이<그림 11> 전체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王會圖」고구려사신이 착용한 長襦에는 如意형 문양 주위에 蓮珠紋이 둘러진 무늬<그림 10>가 전체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문양 또한 고구려 고분벽화나 기타 다른 고구려 관련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문양이다. 『翰苑』卷30 蕃夷部 高句麗條에는 “紫地纈紋”의 기록이 보이고 있어 고구려 染紋織物의 발달 수준을 짐작 할 수 있으나, 圖卷에 묘사된 상태만으로는 복식에 표현된 문양의 기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문양의 중

심 부분은 짙은 초록색으로 칠하였고 테두리와 외곽의 蓮珠紋은 흰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9> (백제) <그림 10> (고구려) <그림 11> (신라)

(6) 신 발

「王會圖」의 삼국사신은 모두 운두가 높은 흑색의 靴를 착용하였는데, 세 사신의 靴 모두 뒤꿈치 부분이 다른 색으로 구분된 형태이다. 백제사신의 靴<그림 12>는 발목 부위에 끈이 있고 뒤꿈치 부분은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신목으로부터 발등, 발가락 끝까지 중심에 線이 그려져 있다. 고구려사신의 靴<그림 13>는 끈의 형태는 보이지 않으나 발목 부위에 선이 묘사되어 있고, 뒤꿈치 부분은 옅은 황색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 신라사신의 靴 역시 발목부위에 끈이 있고 뒤꿈치 부분이 회색으로 구분되어 있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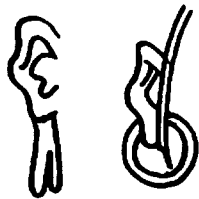
<그림 12> (백제) <그림 13> (고구려) <그림 14> (신라)

「蕃客入朝圖」의 신라사신은 靴를 신고 靴의 안쪽으로 바지를 넣어 입고 있는데, 이는 두 圖卷에 묘사된 나머지 삼국사신들의 바지 착용모습과 구별되는 것이다. 신목 부위에 그려진 線들은 장식선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梁書』⁵⁶⁾와 『南史』⁵⁷⁾의 신라인의 靴 기록과 함께 「梁職貢圖」宋代 模本과 「王會圖」, 「蕃客入朝圖」의 백제사신이 모두 靴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靴의 착용은 遠行時의 馬上 또는 보행의 편의를 위하여 착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蕃客入朝圖」의 백제, 고구려사신은 모두 통이 넓은 바지 아래로 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지의 넓은 밑단, 주름, 발목 부위의 가로, 세로 線 묘사 등으로 인해 靴의 형태가 분명하

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鞞의 앞코가 위로 들어 올려진 高頭履 형을 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7) 장신구

두 圖卷에 묘사된 삼국사신 중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신은 「王會圖」의 백제, 고구려사신으로 두 사신은 모두 耳飾⁵⁸⁾을 착용하고 있다. 고구려사신은 둥근 고리모양의 귀고리를 착용하였고, 백제 사신은 착용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귓볼 아래로 길게 늘어져 수식부분이 돌로 갈라지는 형태의 耳飾을 착용하였다. <그림 15(左:백제, 右:고구려)> 耳飾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속공예품 중 제작방법이 가장 발달한 분야로 볼 수 있는데, 耳飾의 출토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삼국시대에 耳飾이 크게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사신이 착용한 귀고리는 耳飾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素環耳飾으로 귀에 직접 매다는 고리부분인 主環만 있는 형식이다. 耳飾에 대한 문헌기록은 많지 않으나 『翰苑』高麗條에 귀를 뚫어 金環을 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⁵⁹⁾ 고구려의 耳飾 착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 耳飾의 출토품은 많지 않으나 신라, 백제의 유물과 비교하여 간단하고 소박하며, 垂下付耳飾의 경우 중간식, 수하식의 구조가 비교적 작은 것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王會圖」고구려사신의 耳飾 착용 모습은 출토유물과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는 귀고리들의 실제 착용 방식을 제시하는 자료이다. 백제사신의 耳飾은 주환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끝 부분이 돌로 갈라지는 긴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착용방식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백제사신의 耳飾은 「王會圖」의 다른 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착용한 耳飾의 형태나 기존에 출토된 백제 耳飾들에서 보이지 않는 특이한 형태이다.



<그림 15> 「王會圖」, 耳飾 착용모습
(左:백제, 右:고구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史料的 가치를 검토하고 圖卷에 묘사되어 있는 우리나라 삼국사신의 복식을 고찰한 것이다.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고대 삼국사신의 모습이 각각 정확한 國名의 표기와 함께 동일 공간에 그려져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으며, 두 圖卷에 묘사된 삼국사신의 모습을 통해 삼국복식의 정황을 확인하고 나아가 고대 복식의 현대적 복원작업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梁職貢圖」宋代 模本の 殘卷과 함께 6세기 초 梁 元帝 蕭繹이 편찬한 「梁職貢圖」의 模本으로 인정되고 있다. 「王會圖」는 7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作者로는 唐 閻立德과 閻立德이 언급되었으나 단정적인 기록은 없다. 이것은 絹에 그려진 彩色畫로 총 24개국 26명의 사신의 朝貢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蕃客入朝圖」는 10세기 초, 五代 南唐(923-936)의 顧德謙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종이에 그려져 있고 彩色없이 墨線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며, 총 31개국 35명의 사신의 朝貢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두 圖卷의 史料的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梁職貢圖」宋代 模本 및 「王會圖」, 「蕃客入朝圖」에 기재된 國名과 그 기재순서에서 보이는 일치 정도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가 동일한 母本 곧 蕭繹의 「梁職貢圖」에서 파생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梁職貢圖」原圖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6세기 초 梁과 여러 주변국간의 朝貢관계 기록을 통해 볼 때, 「梁職貢圖」에 묘사된 인물들은 실제 梁을 방문했던 使者의 모습으로 추정되며 이를 模寫한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인물, 복식 묘사는 寫實性을 갖는다. 셋째, 「王會圖」와 「蕃客入朝圖」는 模本이라 하여 가치가 저하되는 것은 아니며, 「梁職貢圖」原圖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고 두 圖卷 자체가 이미 연대적인 가치가 있으며, 當代 일류 화가의 필치가 더하여 繪畫史的 의의 또한 크다.

두 圖卷에 묘사된 삼국사신의 복식을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두 圖卷의 백제사신은 상투를 틀어

올리고 折風형의 관모를 착용하고 있다. 새롭게 보이는 자료로서 「王會圖」사신의 長襦에 장식된 白蓋형 문양과 耳飾의 형태가 주목된다. 두 圖卷의 고구려사신은 상투를 틀어 올리고 鳥羽冠을 착용하였다. 「王會圖」고구려사신은 如意형의 문양이 長襦 전체적으로 장식되었고, 素纒耳飾의 착용 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蕃客入朝圖」고구려사신의 바지하단 앞중심 부분을 신발의 모습과 함께 고찰할 때, 넓은 袴만 착용한 모습과는 다르게 판단되며 이는 袴 위에 裳을 착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두 圖卷의 신라사신이 착용한 복식은 백제, 고구려사신에 비해 길이와 폭이 간소한 편인데 이는 당시 신라의 정치적, 국제적 관계로 볼때 호복계의 國俗이 좀더 많이 남아있는 모습으로 사료된다. 두 圖卷의 신라사신은 襪장식이 있는 각이진 관모를 착용하였는데, 「王會圖」의 사신은 被髮을 하고 있어 주목되며 이는 사신의 연령, 결혼여부, 신분 및 구체적 직무와의 연관 가능성이 추정된다. 사신의 바지에는 雲紋형이 그려져 있다. 「蕃客入朝圖」의 사신은 바지를 靴 속에 집어넣어 착용하고 그 위에 폐슬류와 같은 것을 드리운 모습이 특징적인데 이는 전 신라시대에 걸쳐 보이지 않는 의복유형으로써 다만 중국에 가는 사신의 복장을 위하여 의례적인 목적으로 특별히 갖추어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圖卷에 묘사된 총 6인의 삼국사신은 모두 長襦(또는 襦)와 袴를 입고 관모를 착용하였으며 帶를 두르고 靴를 신은 것이 공통되는데, 삼국의 사신들이 쓰고 있는 관모는 服飾과는 다르게 각국의 독자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식의 袍를 입지 않고 直領交衽(右衽)의 長襦(또는 襦)와 袴를 착용한 이러한 樣式은 외국에 파견되는 使臣이 고유의 복장 樣式을 따름으로써 自文化를 나타내는 文化使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양이 장식된 비교적 화려한 복식, 袴 위에 착용한 裳류, 폐슬류 등의 복식 유형, 관모와 장신구를 갖추고 拱手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使臣으로서의 의례적 차림새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두 圖卷에서 새롭게 보이는 자료들은 고대 복식의 복원작업에 있어서 복식의 형태복원 뿐 아니라 착장 방식 및 구성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에는 우리나라 삼국사

신 이외에도 많은 주변국 사신이 묘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각국의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포함한 주변국 사신의 복식 고찰을 통해 고대 아시아 諸國의 복식 특징 및 우리나라 복식과의 공시적 비교, 나아가 한국복식이 가진 독자적 영역이 실증적으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圖卷의 묘사와 영세한 문헌기록만으로 정확히 해명되지 않는 사실들은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함께 추후의 논의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藝文類聚』, 『大觀錄』, 『石渠寶笈』
- 『秘殿珠林石渠寶笈合編』, 上海書店, 1988 影印
- 『宣和畫譜』, 臺北:世界書局, 民國 63年(1974)
- 張彥遠 撰, 『歷代名畫記』, 北京:中華書局, 1985
- 葛路 著, 姜寬植 譯, 『中國繪畫理論史』, 미진사, 1989
- 金東旭, 『百濟의 服飾』,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5
-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考·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昭和 54年
-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編著, 『中國服飾五千年』, 學林出版社, 1984
- 유희경, 김문자, 『韓國服飾文化史』, 교문사, 1998
-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 李天鳴, 『中國疆域的變遷』上·下, 台北:國立故宮博物院, 民國 86年(1995)
- 何恭上 編著, 『隋唐五代繪畫』, 台北:藝術圖書公司, 1995
- 韓國史研究會 編, 『古代 韓中關係史의 연구』, 三知院, 1987
- 榎一雄,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方學』26, 1963
- _____, 「古宮博物院所藏の梁職貢圖について」, 『東洋文庫書報』19, 1988
- _____, 「滑國に關する梁職貢圖の記事について」, 『東方學』27, 1964
- 김영재, 「王會圖」에 나타난 우리나라 삼국사신의 복식, 『한복문화』3(1), 2000.4
- 金維諾, 「職貢圖의時代與作者」, 『文物』1960.7
- 김희정, 「章懷太子墓 禮賓圖 中 - 우리나라 使臣 服飾 -」, 『服飾』19호, 1992.11
- _____, 「우리나라 使臣服에 관한 연구 -統一新羅時代까지-」, 『服飾』27호, 1996.2
- 소진철, 「梁職貢圖로 본 백제 무녕왕의 강토」, 『한국학보』90, 일지사, 1998
- 深津行徳, 「台灣故宮博物院所藏梁職貢圖模本について」, 『朝鮮半島に流入した文化要素の研究(2)』,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 No44, 1999.3

- 梁慶愛,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李弘植, 「梁職貢圖 論考」, 『韓國 古代史의 연구』, 1971
- 鄭宛眞, 「高句麗 冠帽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周災美,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慶州地域出土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 洪思俊, 「梁職貢圖에 나타난 백제국사의 초상에 대하여」, 『백제연구』12, 충남대 백제연구소, 1981
- 國立古宮博物院編輯委員會 編, 『古宮書畫圖錄』(十五), 台北:國立古宮博物院 1995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 編, 『中國美術全集』繪畫編(1), 北京:人民美術出版社, 1986
- 中國歷代藝術編輯委員會 編, 『中國歷代藝術』繪畫編(上), 北京:人民美術出版社, 1994
- 1) 김영재, 「王會圖」에 나타난 우리나라 삼국사신의 복식, 『한복문화』3(1), 2000.4.
- 2) 榎一雄,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方學』26, 1963, pp.31-33.
- 3) 金維諾, 「職貢圖의 時代與作者」, 『文物』1960.7. 참조.
- 4) 『石渠寶笈』은 清 乾隆帝의 예술품 所藏 목록으로, 乾隆帝가 자신의 방대한 컬렉션을 정선하여 1744년에 『秘殿珠林』, 1745년에 『石渠寶笈』 초편을, 1793년에 그 속편을 편찬하였다.
- 5) 『石渠寶笈』卷5 貯御書房 「唐閻立德職貢圖」條.
- 6) 『大觀錄』은 중국 清代 초기 吳升이 편찬한 중국 書畫圖錄으로, 그가 감상한 書畫를 해설하고 있다.
- 7) 『大觀錄』卷11, 「閻立德王會圖」條.
- 8) 金維諾, 앞논문.
- 9) 『舊唐書』卷197, 列傳 147, “貞觀三年 元深入朝 冠烏熊皮冠 若今之施頭 以金絡額 身披毛毳 韋皮行而著履 中書侍郎顏師古奏言 昔周武王時 天下太平 遠國歸款 周史乃書其事爲王會篇 今萬國來朝 至於此輩章服 實可圖寫 今請撰爲王會圖 從之 以其地爲應州 仍拜元深爲刺史.”
- 10) 『唐會要』卷99, 東謝蠻, “貞觀三年 元深入朝 冠烏熊皮冠 若今之施頭 以金絡額 身披毛毳 韋皮行而著履 中書侍郎顏師古奏言 昔武王時 天下太平 遠國歸款 周史書其事爲王會篇 今萬國來朝 至於此輩章服 實可圖寫 今請撰爲王會圖 從之…”
- 11) 『宣和畫譜』卷1, 道釋1, 唐 閻立德 條, “唐貞觀中 東蠻謝元深入朝 顏師古奏言 昔周武時 遠國歸款 乃集其事爲王會圖 今并服鳥章集蠻邸 實可圖寫 因名立德等圖之 其序位之際 折旋規矩 端簪奉笏之儀 與夫鼻飲頭飛人物詭異之狀 莫不備該毫末 故李嗣眞云 大安博陵 難兄難弟 謂立德立本也.”
- 12) 『歷代名畫記』卷9, 唐朝上 128人, 立德弟立本, “…時天下初定 異國來朝 詔立本畫外國圖…”
- 13) 『歷代名畫記』卷9, 唐朝上 128人, 立德弟立本, “李嗣眞云 博陵(立德) 大安(立本) 難兄難弟 自江左陸謝云亡 北朝子華(楊子華)長近 象人之妙 號爲中興 至若萬國來庭 奉塗山之玉帛 百萬朝貢 接應門之位序 折旋矩度 端簪奉笏之儀 魁詭譎怪 鼻飲頭飛之俗 盡該毫末 備得人情 二閻同在上品”
- 14) 跋文이란 書畫卷이나 帖冊에 그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기록을 적은 것이다.
- 15) 『石渠寶笈』卷5 貯御書房 列朝人書畫目錄 畫卷上等, “唐閻立本王會圖一卷 素絹本, 着色畫, 凡二十四段, 每段楷書署國名於上. 卷後一印, 漫漶不可識. 拖尾, 王肯堂書贊云, 古先哲王, 區分中外, 重譯來王, 厥德乃大, 成周之隆, 八方會同, 各以其職, 來獻鎬宮, 丕承武王, 垂拱而治, 爰作王會, 胎法厥世, 日或月出骨, 桂海水天, 踰沙軼幕, 叩關請前, 火齊錯落, 浮琛清沉羽, 道路如織, 歸我天府, 春王三朝, 九夷賓將, 庭燎晰晰, 璧玉華光, 削衽解纒, 十百其耦, 象胥舌人, 價相先後, 施於後世, 爰及有唐, 貞觀之治, 洽於要荒, 朝貢紛紜, 服章詭異, 惟天可汗, 是依是庇, 乃詔曲臺, 乃命鴻臚, 乃命良工, 繪王會圖, 咫尺滇池, 跬步 瀚海, 狼居龍堆, 滅汲拵羈, 丹崖鏤石, 黑水流漸, 一幅之間, 氣候屢移, 竈茲之樂, 巴俞之舞, 登於縑素, 寫其欲舉, 詔揭遂宇, 以遠休聲, 群公縱觀, 劍珮鏘鳴, 維圖之設, 有勤有戒, 惇德允元, 蠻夷冠帶, 聖皇鑒此, 無怠無荒, 日增月益, 山梯海航, 王會未書, 職會莫紀, 時而颺之, 以對嘉祉, 後識云, 右余館試王會圖贊, 吳君携此卷請書, 聯爲書之, 損庵堂, 前有吳廷私印, 吳國弼, 二印, 後有吳廷書畫之印一印, 卷高八寸七分, 廣七尺四寸, 引首, 御題重鐫共球四大字, 款署乾隆御筆, 下有幾暇鑒賞之璽, 乾隆宸翰, 二璽, 御筆題籤, 籤上有乾隆宸翰一璽, 按此卷無款識, 而內府所藏閻立本職貢圖, 與此正相類, 其用筆高古渾厚, 亦非後人所能到, 故知爲閻立本真蹟無疑也.”
- 16) 鑑藏印(또는 鑑定印)은 書畫를 감상하거나 감정, 또는 소장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쓰인 印章이다.
- 17) 그림을 그린 후 그림 위에 작가의 字號, 제작년월일, 제작동기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 18) 榎一雄, 「古宮博物院所藏의 梁職貢圖について」, 『東洋文庫書報』19, 1988, pp.61-62.
- 19) 조선일보, 1998.9.30.
- 20) 國立古宮博物院編輯委員會 編, 『古宮書畫圖錄』(十五), 國立古宮博物院 1995, pp.25-28.
- 21) 『石渠寶笈續編』第17 養心殿藏, “南唐顧德謙模梁元帝蕃客入朝圖一卷, [本幅] 素綾本, 縱八寸四分, 橫一丈六尺八寸, 白描畫各國人物, 衣飾各異, 標題, 一, 魯國, 二, 芮芮國, 三, 河南, 四, 中天竺, 五, 爲國, 六, 林邑國, 七, 師子國, 八, 北天竺, 九, 渴盤陀國, 十, 武興蕃, 十一, 宕昌國, 十二, 狼牙修國, 十三, 鄧至國, 十四, 波斯國, 十五, 百濟國, 十六, 龜茲國, 十七, 倭國, 十八, 周古柯, 十九, 呵跋檀國, 二十, 胡密丹國, 二十一, 白題國, 二十二, 臨江蠻, 二十三, 高麗國,

二十四.高昌國, 二十五.天門蠻, 二十六.建平蠻, 二十七.滑國, 二十八.于闐, 二十九.新羅, 三十.于陀國, 三十一.扶南國. 無名款, 卷首尾. 有宋理宗題識云, 梁元帝蕃客入朝圖, 定爲南唐顧德謙所臨. 鈐印二, 御書之寶, 乾卦圓印. 又瓢印: 己酉, (引首) 御筆, 自文其弱. 鈐寶: 八徵耄念, 御題行書. 梁圖顧德謙津逮, 婆利龜茲務遠奇, 可笑江南安撮土, 魯河南竟入諸夷, 是卷宋理宗題爲南唐顧德謙摹梁元帝蕃客入朝圖. 按梁書, 武帝時, 婆利龜茲扶南高麗等十餘國, 有獻方物者, 至大同以後全無, 且元帝於侯景亂後, 已以長江爲限, 荊州界, 北盡武寧, 西拒峽口, 嶺南爲蕭勃所據, 詔令所行, 不過千里, 民戶著籍, 不盈三萬, 豈尚有番禺朝貢之事, 未幾, 魏遣于謹會蕭伐梁, 如入無人之境, 而元帝臨敵聽講, 巡城和詩, 愚駿之態, 可以概見, 何暇繪此圖, 誇張遠略哉, 圖中所列, 乃有魯及河南名目, 考吐谷渾居赤水, 在河之南, 璽以爲號, 其地近在涼州尚可, 然並非外域也, 至於卷中第一人書魯, 則梁書諸夷傳, 更無假借此名者, 豈以少皞之墟, 判爲異國, 尤不值一噓矣, 因閱是卷, 並識詩末, 乾隆癸丑新正, 御筆, 鈐寶二, 八徵耄念, 自強不息, (鑒藏寶璽) 八璽全, 五福五代堂古稀天子寶, 八徵耄念之寶, 寫心, 卽有同春, 太上皇帝之寶, 嘉慶御覽之寶, 宣統御覽之寶, 收傳印記, 長口封, 眞賞, 將石亭印, 南邑開國, 步瀛書院, 廣仁殿, 內殿書印, 鄭俠如印, 鄭熙續懋嘉氏一字有常, 鄭俠如鑒定, 希世之寶, 坦坦生, 鄭玉珩書畫印, 謹按悅生古蹟記, 載梁元帝蕃客入朝圖, 今此卷有長脚封字, 乃賈似道印, 或卽此卷, 顧德謙, 南唐時江寧人, 善繪人物, 後主愛重之, 常曰, 古有惜之, 今有德謙, 二顧相望, 繼爲畫絕矣, 見十國春秋, 廣仁, 金殿名, 見王士點禁扁, 是此卷會入明昌御府也.”

- 22) 榎一雄, 앞논문(1988), pp.62-63.
深津行徳, 「台灣故宮博物院所藏 「梁職貢圖」 模本について」, 『朝鮮半島に流入した文化要素の研究(2)』, 學習院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調査研究報告 No44, 1999.3, pp.48-55.
- 23) 「梁職貢圖」宋代模本の 내용 중 宕昌國의 경우는 使者像의 그림과 직방지의 앞부분이 손실되어 있으므로 실제 그림으로 보이는 使者像은 12국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宕昌國의 국명도 포함하여 13국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 24) 『梁書』卷54, 列傳48의 기록을 바탕으로 삼국사신의 통고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 기 | 내 용 |
|----------------|--------------------|
| 天監11年 3月 (512) | 高麗國遣使獻方物 |
| 4月 | 百濟, 扶南, 林邑國 並遣使獻方物 |
| 15年 4月 (516) | 高麗國 遣使獻方物 |
| 普通元年 1月 (520) | 扶南, 高麗國 各遣使獻方物 |
| 2年 11月 (521) | 百濟, 新羅國 各遣使獻方物 |
| 7年 3月 (526) | 高麗國遣使獻方物 |

| 시 기 | 내 용 |
|----------------|-------------------|
| 大通元年 11月 (527) | 高麗國遣使獻方物 |
| 4年 11月 (532) | 高麗國遣使獻方物 |
| 6年 3月 (534) | 百濟國遣使獻方物 |
| 大同元年 2月 (535) | 高麗國, 丹丹國 各遣使獻方物 |
| 7年 3月 (541) | 高麗, 百濟, 滑國 各遣使獻方物 |
| 太清3年 12月 (549) | 百濟國遣使獻方物 |

- 25) 金維諾, 앞논문
- 26) 「王會圖」백제사신이 착용한 長襦의 色은 『PANTONE Textile Color System - paper edition』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5-6114TP와 16-5907TP 의 중간정도의 色과 유사하고, 袴는 14-1038TP 와 유사한 黃色으로 묘사되어 있다.
- 27) 앞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7-1544TP 와 가장 유사하다.
- 28) 「王會圖」의 高句려사신이 착용한 長襦의 色은 앞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7-1545 TP와 가장 유사하고, 袴는 「王會圖」의 백제사신이 착용한 長襦의 色과 동일한 色으로 묘사되어 있다.
- 29) 앞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4-1119TP와 가장 유사하다.
- 30) 高句려사신이 착용한 長襦의 色과 동일하다.
- 31) 앞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3-1018TP와 가장 유사하다.
- 32) 앞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2-0910TP와 가장 유사하다.
- 33) 『新唐書』卷220, 列傳 第145, 東夷 新羅條, “……男子剪髮露冒以黑巾”
- 34) 백제의 弁形의 冠帽 유물로는 부여에서 출토된 畫瓦 弁冠에 얼굴 正面이 陰刻된 인물과 全北 益山郡 출토의 金銅製 弁形帽등이 있다.
- 35) 정완진, 「高句麗 冠帽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p.46-49.
- 36) 『三國史記』百濟本紀 古爾王 27年(260)의 기록 참조.
- 37) 洪思俊은 앞 논문 pp.167-168에서 「梁職貢圖」의 백제사신이 착용한 관모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당시에는 (1981) 현재보다 그림의 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따르면 머리에 얹은 冠은 금속이 아닌 천(布)으로 만든 듯 하며 꽃송이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였다. 앞머리 위로는 높다란 깃(羽) 두줄기가 솟아 올라 있으며 귀(耳)를 가운데 두고 二條의 끈으로 내려서 턱 밑에 매었는데 그 끈이 목에 늘어져 있다고 하였다. 柳喜卿은 「梁職貢圖」의 백제사신이 착용한 관모에 대해 입식의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國使라는 신분으로 볼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쓰는 외래풍의 幘 종류를 착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百濟의 冠飾考』, 『服飾』제17호, 1991, pp27.)

- 38) 정완진, 앞논문, pp.53.
- 39) 『隋書』卷81, 列傳46, 高麗, “人皆皮冠, 使人加插鳥羽, 貴子冠用紫羅, 飾以金銀, 服大袖衫…”
- 40) 이응범은 ‘使人’을 중국인이 自國에 파견된 外國使臣을 총칭하여 이른 말이라고 보았다.(이응범, 『고구려인의 鳥羽插冠에 대하여』, 『동국사학』제4집, 1956, pp.5.)
- 41) 앞의 color chip을 기준으로 18-5410TP 와 가장 유사하다.
- 42) 『梁書』卷54, 列傳 48, 諸夷傳, 新羅, “其冠曰遺子禮, 襦曰尉解, 袴曰柯半, 靴曰洗”
- 4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第4, 法興王 7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 44) 『三國史記』卷33 雜志 第2 色服의 기록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品階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 服 | 紫 | | | 緋 | | | 青 | | | 黃 | | | | | | | | | |
| 笏 | 牙笏 | | | | | | | | | | | | | | | | | | |
| 冠 | 錦冠 | | 緋冠 | | | | | 組纒 | | | | | | | | | | | |

- 45) 양경애는 「王會圖」와 「蕃客入朝圖」의 묘사선도에 표현된 신라사신을 法興王代나 眞興王代에 파견된 사신으로 보고, 당시 중국과의 관계로 볼 때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파견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신라사신이 쓴 관모는 높은 品階의 冠帽인 錦冠 또는 緋冠으로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양경애, 『三國時代 支配階層 服飾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p.83-84.)
김영재는 앞논문 pp.23에서, 「王會圖」의 신라사신의 冠帽을 幘으로 보았다.
- 46) 김동욱은 「梁職貢圖」宋代 模本の 백제사신의 上衣를 襦를 약간 길게 한 전형적인 동방의 袍로 보았는데, 깃 아래부분이 단까지 연결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正倉院의 襦袍와 연결시키고 있다. 襦袍는 깃의 처리가 목판깃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으로 7세기 경 한반도로부터 전래된 스타일이라고 보았다.(김동욱, 『百濟의 服飾』, 1985, pp.62, 참조)
- 47) 김영재는 앞논문, pp.21에서 「王會圖」는 화가가 실물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지와 그 襦를 구별하지 못하고 붉은 바지에 분홍치마를 입은 것 같이 묘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48)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를 근거로 한 6세기 百濟와 梁과의 교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시 기 | 내 용 |
|------------------|-----------------------|
| 武寧王 12년(512) 4월 | 遣使入梁朝貢 |
| 武寧王 21년(521) 11월 | 遣使入梁朝貢 |
| 聖王 12년(534) 3월 | 遣使入梁朝貢 |
| 聖王 19년(541) | 王遣使入梁朝貢, 兼表青, 博士工匠畫師等 |
| 聖王 27년(549) 10월 | 王不知梁京師有寇賊, 遣使朝貢 |

- 49) 『三國史記』高句麗本紀를 근거로 하여 6세기 고구려와 梁의 교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 기 | 내 용 |
|---------------|-------------------------------------------------|
| 文咨明王 11년(502) | 冬十月 地震 民屋倒墮 有死者 梁高祖即位 夏四月 進王爲車騎大將軍 |
| 文咨明王 21년(512) | 春三月 遣使立量朝貢 |
| 文咨明王 25년(516) | 夏四月 遣使入梁朝貢 |
| 安藏王 2년(520) | 春正月 遣使入梁朝貢 二月 …高句麗王遣使者江注盛 賜王衣冠 劍佩魏兵就海… 秋九月 入梁朝貢 |
| 安藏王 8년(526) | 春三月 遣使入梁朝貢 |
| 安藏王 9년(527) |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
| 安原王 2년(532) | 夏四月 遣使入梁朝貢 冬十一月 遣使入梁朝貢 |
| 安原王 5년(535) | 春二月 遣使入梁朝貢 |
| 安原王 11년(541) | 春三月 遣使入梁朝貢 |

- 50) 김영재는 앞논문 pp.23에서 신라사신이 얇은 분홍의 上衣안에 붉은 빛이 도는 貫頭衣를 착용한 것으로 보았다.
- 51) 狼牙脩, 建平蕃國使의 경우에 上衣를 입지 않았거나 上衣의 목둘레선이 비교적 확실히 구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사신의 경우와 유사한 목 부위의 線描가 관찰되어 자료로 제시하는 바이다.
- 52)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4, 法興王, “八年 遣使於梁 貢方物.”
『梁書』卷3, 本紀3, 武帝 下, “普通二年…… 冬十一月 百濟 新羅國 各遣使獻方物.”
- 53) 『隋書』卷81, 列傳46, 東夷 新羅, “風俗 刑政 衣服 略與 高麗百濟同”
- 54) 『通典』卷185, 東夷 上, 新羅, 『三國史記』卷5, 新羅本紀 第5, 참조.
- 55) 白蓋(혹은 寶蓋)는 佛家의 八寶紋의 하나로 우산모양의 덮개를 말하는데, 삼천의 밝음과 일체의 낙을 두루 덮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56) 『梁書』卷54, 列傳 第48, 東夷 新羅, “其冠曰遺子禮, 襦曰尉解, 袴曰柯半, 靴曰洗.”
- 57) 『南史』卷79, 列傳 第69, 新羅, “其冠曰遺子禮, 襦曰尉解, 袴曰柯半, 靴曰洗.”
- 58) 耳飾은 일반적으로 '귀걸이' 또는 '귀고리' 등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귓밥에 구멍을 뚫어 고리를 꿰거나, 약간 열린 고리로 귓밥의 양편에서 加壓하여 달아내는 것을 '귀고리'로, 귓바퀴에 걸어 착용하는 것은 '귀걸이'로 보고자한다.
- 59) 『翰苑』卷30, 蕃夷部, 高麗, “高麗婦人衣白 而男子衣 結錦…穿耳以金鑽”